금주의 법구-〈유행경〉
태어날 때부터 귀천이 따로 있지 않다.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천하기도 귀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8일)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감축 승가교육 개편 다시 시작

교육원장 현응 스님,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이 기본교육기관 숫자 축소 · 구족계 수지 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다시 한번 승가교육시스템 개편에 들어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 기조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법교화는 승가상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시스템 개편을 예고했다. 교육원이 승가교육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10년 이후 8년만 이다.



조계종 승가교육 개편 과제

- 기본교육기관 숫자 축소
- 교수 적정수 유지책 마련
- 교수 스님 새 역할 부여
- 기본교육과정 학제 조정
- 구족계 수지 시점 조정

2010년 개편 이후 8년만에
기본교육기관 1/3로 감축 추진
구족계 수지 시점 조정 논의도
출가 감소인한 환경 변화 원인

일선 교육현장 스님들 반발 예상
"장기 과제… 충분히 논의할 것"

전법 · 교화 역량 강화 교육은 지속
전법사 · 승가결사체 지원, 첫 시행

출가 절벽 시대의 대응책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승가교육시스템 개편이었다. 현응 스님이 기자회견문에 밝힌 개편 과제로는 △기본교육기관 숫자 축소 △교수 및 연구자 적정수 유지책 마련 △승가대학 축소에 따른 교수 스님 새 역할 부여 △기본교육과정 학제 조정 및 구족계 수지 시점 조정 △기본교육과정 이후 다양한 전법활동 장려 등이다.

이 같은 개편 과제는 모두 출가자 급감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육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한해 출가자 200명 선을 유지됐지만 2016년에는 157명, 2017년에는 151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는 더 사정이 나빠져 120~130명대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출가자가 급감하다보니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인 수도 줄어들었다. 현재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은 동국대 · 중앙승가대 · 사찰승가대학 · 기본선원 등으로 분류되며 총 18곳이다. 이 중 상당수 승가대학의 전체 학인이 6~9명 정도로 줄어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교육원 측의 설명이다.

현응 스님은 "지금 기본교육기관 숫자는 연간 출가자가 현재보다 3~4배 많았던 20년 전에 설립된 숫자"면서 "출가자가 20년 전에 비해 1/3으로 준 현실에서 교육기관 숫자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교육 효과와 예산 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현행 교육기관 중 1/3 가량을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며 "교수 스님 등 교육자 스님들의 역할 문제 등도 논의해야 하며, 해당 사찰의 입장도 있다. 긴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장 진광 스님도 "출가자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향후 5년 내에 없어질 기관들도 적지 않다"면서 "출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 종단도 교육기관들도 유연한 사고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것이 왔다' 면서도…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스님들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본교육기관 축소에 대해서는 '올 것이 왔다'는 입장이다.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제 조정과 구족계 수지 시점 조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구 승가대학의 한 교수 스님은 "출가자 급감 시대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상황이자 시점이었다"면서 "기본 교육기관 축소는 교육의 질과 학인 장학 혜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대중 생활이 요구되는 대형 사찰들이 현실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비구니 승가대학장 스님은 "기본교육기관 축소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라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학제를 조정해, 구족계를 수지하게 하는 방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 사람이 없을수록 더욱 양질의 교육을 시켜 일당백의 수행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승가교육 개편 사업을 장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일선 현장과 소통과 대중 여론 수렴도 충분히 진행한다는 것이다. 현응 스님은 "승가교육 개편은 한해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갈 사업"이라며 "추후 일선과의 회의, 공청회 등을 추진하며 폭 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법 역량 강화는 '현재진행형'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응 스님은 '전법 교화하는 승가상 구현'이 교육원의 목표임을 재차 천명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법사 제도와 승가결사체 발굴 및 지원 사업 등은 '전법 교화 승가상'을 위한 대표적 사업이다. 1~5급 승가고시에도 전법교화활동 내용을 확대하고 전법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승도 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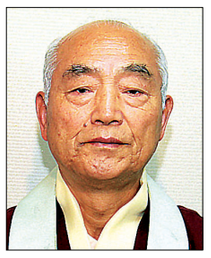
현응 스님은 "한국불교계의 모든 노력의 선두에는 승가가 앞장서야 하며, 승가의 수행력과 교화력도 과거보다 높고 커야 한다"면서 "교육원은 올 한해 승가의 수행과 교화활동을 더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설원의 삼보일배 정진열에 한겨울 추위도 느껴지지 않는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1월 14일 강원도 영월 법흥사에서 총본산 성역화 불사 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동참자들은 이날 석가모니불 정근과 삼보일배로 법흥사 금강문에서 적멸보궁까지 올랐다. 사진제공=조계사

총지종 제12대 종령 법공정사 추대

18일 승단총회서 만장일치로 2월 17일부터 6년 임기 시작



총지종이 신임 종령에 법공 정사를 추대했다. 총지종은 1월 18일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 승단총회를 개최하고 12대 종령으로 법공 스님〈사진〉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법공 정사는 추대식을 거쳐 2월 17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법공 정사는 1983년 출가해 부산 성화사, 정각사 등에서 주교를 거쳐 법장원장과 총지종 제10대, 13대 통리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서원당에서는 종단 관계자 및 종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신년하례법회도 열렸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올 한해 일선에서 교화에 앞장서자"며 종도들을 격려했다.

이어 종단 원로 스승을 위한 기로진원식도 열렸다. 기로스승으로 진원된 환수원 전수에게는 사령장이 전달됐으며, 40여 년간 중생교화와 종단 발전에 힘써준 데 감사의 의미로 공로패가 수여됐다.

올해로 창종 47주년을 맞은 총지종은 창종 50주년 준비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종교계 중재로 KTX 승무원 환수금 해결

노사, 종교계 중재안 수용… 승무원 원금 5%만 부담

KTX해고승무원들의 부당이익금 환수문제가 종교계 노력으로 극적 해결됐다. 대전지방법원(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1월 16일 철도공사가 KTX해고승무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과 관련 조정재판서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승무원은 원금의 5%를 3월 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승무원은 철도공사의 해외사업 진출 등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ILO(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UN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하지 않을 것"도 권고했다. 양측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승무원들은 총 1억4256만원(1인당 432만원)을 철도공사에 지급하면 된다.

KTX열차승무지부는 이 같은 결과에 성명을 발표, "대법원 판결로 4년간 지급받은 임금이 '부당이득금'으로 돌아와 해고승무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종교계가 중심이 돼 사회적 중재를 추진했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주신 종교계 지도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불교 · 천주교 · 개신교 · 성공회 등 4대 종단 대표자들은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 선례를 고려해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번 종교계의 적극적인 중재는 화해와 상생의 가치 아래 진정한 국민통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진형 기자

1300년만에 신비의 에밀레종 소리 / 문양 완벽 재현

보라! 완벽하게 재현된 에밀레종의 아름다운 비천상

다모된 비천상 얼굴부터 향로, 천의까지 고증을 통해 완벽 복원

드이어 성종사 기술진이 전매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신비의 에밀레종을 외관은 물론 소리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음향 분석을 맡은 강원대학교 김석현 교수는 "재현종의 600hz 이내의 주파수 성분이 에밀레종과 96~99% 동일하여 실제 에밀레 종소리와 거의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여음의 경우 재현된 종이 25%정도 향상되어 오히려 더 오래 울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재현된 에밀레종 (일명 신라대종, 5,300관)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Tel 02)733-6141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i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Tel 043)536-2581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대한민국 명장)

